

# '어벤져스3'에 맞선다...유해진·유아인·조진웅 출격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히어로들이 5월 초에도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선 한국의 스타들이 극장가 출격을 준비 중이다.

1000만 관객 돌파에 한 걸음씩 다가가며 5월 극장가도 휩쓸고 있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하 '어벤져스3'). 오는 9일 '레슬러'를 시작으로 '독전' 등을 통해 기다

렸던 한국의 배우들이 관객 잡기에 나선다. 먼저 '레슬러'는 유해진이 주연을 맡아 모처럼 극장가에 웃음꽃 피우기에 도전한다. 유해진은 이번 작품

## 한국 영화, 레슬러·버닝·독전 등 개봉 예정 데드폴2·한 솔로:스타워즈 스토리 결전 동참

에서 전직 프로 레슬러에서 프로 살림꾼으로 전향한 귀보 역을 맡았다. 귀보는 어느 날 이틀부터 얽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인물들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유해진은 '레슬러'에서 특유의 유쾌한 웃음을 앞세워 어벤져스에 빠진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 특히 이번엔 주부 9단으로 변신한 민규, 중년 여성 관객 취향 저격까지 예고하고 있다.

유해진에 이어 유아인이 오는 17일 출격한다. 그는 제 7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버닝'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2016년 개봉한 '좋아해줘' 이후 2년 여 만에 관객들과 만날 유아인은 '버닝'에서 이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청년 중수 역을 맡았다. 중수는 유행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 시대를 대변하는 20대의

감성을 유아인이 섬세하게 그려냈다. 후문으로 일찌감치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아인 뿐만 아니라 스티븐 연과 신에 전종서가 출연했다. 유아인을 필두로 세 배우의 조화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22일 개봉을 확정된 '독전'은 조진웅, 류준열, 김성령, 차승원, 고 김주혁 등 스타들이 출연했다. 이 작품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유명 마약 조직의 실체를 두고 펼쳐지는 독한 자들의 전쟁을 그린 범죄극이다. 분량을 떠나 출연 자체만으로 흥행세를 기대했던 조진웅, 류준열, 차승원, 김주혁 등이 모인 만큼 다양한 볼거리가 예고 됐다.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극을 이끌어갈 이 핵심 배우들은 의모부터 확 달라졌다. 변신을 기대했던 관객들이라면 충분히 현혹될 만하다. '어벤져

스3'의 히어로들과 그 역할 자체는 다른 '독전'의 주인공들이지만, 범 죄극 특유의 치고 받는 액션부터 팽팽한 신경전까지 선보일 배우들의 활약은 관심 포인트다.

한국의 스타들이 5월 극장가에서 '흥행 배우'에 도전하는 가운데 할리우드 배우들도 나선다. '데드폴2'의 라이언 레놀즈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의 엘든 이렌리치도 흥행 도전장을 던진다. 오는 16일 '데드폴2'가 개봉, 마블의 19급 히어로 데드폴로 변신한 라이언 레놀즈가 진면목을 있는 영웅발랄 매력에 관객들을 또 한 번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엘든 이렌리치는 오는 24일 '한 솔로: 스타워즈'의 주인공 한 솔로 역으로 그간 '스타워즈' 시리즈에 등장한 한 솔로의 젊은 시절의 활약상으로 색다른 재미를 관객들에 선사할 예정이다.

'어벤져스3'의 기에 눌러 울쪼렸던 한국 영화. 매력 넘치는 한국 스타들이 '어벤져스3'에 맞서 한국 영화 흥행 부활을 이끌어 내길 기대해 본다.

## "부담 가득"...'뜻밖의 Q', 시청자 놀이공간 될까



를 충족시키기에 힘들겠지만 잘 부탁드린다"라고 날카로운 출연 소감을 전했다. 실제로 대중과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소통 중이라고 밝힌 최 PD는 "1회때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2, 3회때부터 시청자들이 직접 내 아이디어로 방송이 꾸며질 예정이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과 녹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우려적 절이 있었고 섭외 또한 쉽지 않았다"라고 했다.

전현무는 섭외 과정에 대해 "최행호 PD와 '나혼사'를 3~4년 같이했다. 또 동갑이기도 해서 편한함이 있다. 너무 같이 하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맞지 않아 처음엔 고사했다"면서 "원래 1~2회만 MC 겸 게스트로 도와주기로 했는데 어느새 MC가 돼 있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 이수근은 "사실 출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제작진과의 미팅으로 알고 나갔는데 출연해줘서 감사하다고 해서 놀랐다"며 "그래도 같이 하게 돼서 좋다. 주말 예능이 다보니 부담감은 있지만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노력할거고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최 PD는 퀴즈쇼 포맷으로 한 이유에 대해 "방송을 보여 참여할 수 있는 건 퀴즈라고 생각했다. 시청자들이 함께 대중문화 전반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

했다. 전현무도 "'문제적 남자'의 음악 편이라고 보면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전현무는 이수근과의 케미에 대해 "퀴즈같은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진행에 집중할 수 있게한다. 고미운 형이다"라고 평했다.

MC 이수근-전현무를 주축으로 은지원, 유세윤 등 'Q플레이어'들이 퀴즈를 푸는 시청자 출제 퀴즈쇼다. 출제자의 성역이 없어 기존의 퀴즈 형식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퀴즈들이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최 PD는 "주말 예능이라는 것은 방송에서 꿈의 무대라고 볼 수 있다. 고민만 하기보다 할 수 있을 때 서로 격려하며 잘 이끌어 나가고 싶다.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예능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 PD는 시청률 순위에 대해 "큰 격차가 나지 않는 3위로 시작하고 싶다. 시작은 미약하나 성장하고 커가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현무도 "타깃 시청층인 2040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다짐했다.

'뜻밖의 Q'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요계 선두배들이 퀴즈를 풀기 위해 열정을 폭발시키며 경쟁을 벌이는 모습과 퀴즈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들의 찰떡 호흡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뜻밖의 Q' 제작진은 "보요일 이후 전 세대가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퀴즈쇼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연진분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뜻밖의 Q'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블랙간사춘기, 5월 컴백...역대급 콘셉트 예고



두요 블랙간사춘기가 5월 중 컴백한다. 소파르뮤직은 블랙간사춘기가 5월 중 'Red Diary Page.2'로 대중들

을 새롭게 만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발매됐던 'Red Diary Page.1'에 이은 새 앨범 소식으로, 8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블랙간사춘기의 가요계 정식 컴백이다.

블랙간사춘기는 'Red Diary Page.1' 활동 이후, 오랜 휴식과 함께 앨범 준비와 학업생활을 병행하였으며 최근 앨범 마지막 작업에 돌입해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블랙간사춘기는 이번 앨범을 위해 최근 해외 유투브로 케로 뮤직비디오 및 자켓 촬영을 모두 진행해 역대급 영상미를 전하는

뮤직비디오와 앨범 포스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소속사 소파르뮤직(대표 신태권)은 블랙간사춘기가 새 앨범 'Red Diary Page.2'를 통해 이전 보다 더 아티스트다운 블랙간사춘기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 말하며 'Red Diary Page.2' 발매 이후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 및 공연에 참여해 가요계 활동을 본격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앨범 발매와 함께 올림픽스에서 7월 중에 이루어질 초대형 콘서트를 기획 중이다.

블랙간사춘기의 'Red Diary Page.2' 깜짝 발매 소식이 전해지며, 정확한 발매 시기를 놓고 가요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연애의 참견', 시청률 상승세 눈길



'연애의 참견' 시청률 상승세가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15일 방송된 KBS 1TV '연애의 참견'은 KBS 1TV에서 여성 30대 타깃 시청률 2.755%(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동시 방송되고

있는 KBS DRAMA 채널에서도 4월 25일 방송이 여자 30대 시청자 층에서 최고 2.249%(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을 차지했다.

지난 1월 첫 선을 보인 '연애의 참견'은 각종 연애사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이별이라 말하는 말발 선 언니들의 로맨스토크쇼 토크쇼이다. 최화정, 김숙, 주유재, 과정이 프로 참견러로 분해 연애와 사랑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나누며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연애의 참견'이 점차 반응을 얻고 있는 비결에는 네 프로 참견러들의 촘촘한 입담에 있다. 격 기준을 기록했다. 동시 방송되고

없는 이들의 핵돌직구 참견이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고 있는 것.

또 기존의 연애 프로그램과 달리 아니다 싶은 연애에는 따끔하게 '이별'을 권장하는 참견러들의 차진 입담 역시 시청자들의 환호하는 부분. 이어 각기 다른 삶과 연애의 발자취를 곁어온 참견러들이 하나의 시연을 두고도 다채로운 의견을 제시하며 풍성함을 더하고 있다.

각종 SNS와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는 열광적인 반응이 속출 중이다. 그간 보지 못했던 색다른 방식의 연애 카운슬링에 찬찬 남들이 화답,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이들은 고정 시청층으로 고소란히 이어지고 있어 '연애의 참견'의 성장이 어디까지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 오늘의 순세 2018년 5월 4일 금요일 (음력 3월 19일)



▶**경미** 1, 2, 3월생 서쪽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한 걸만 향하라. 꾸준히 해온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면 금전적인 이득이 있겠다. 10, 11, 12월생 파란색을 삼가고, 검은색을 입어 힘과 용기를 나타내라.



▶**계미** 사업에 무게를 실고 달리는 것도 좋지만, 가정 화목이야말로 모든 것을 단단하게 성장시킬 울타리임을 알아야 한다. 1, 5, 6월생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라. 각자 제 길만 걷는다면 파멸이 눈앞에 다가올 뿐이다. 오랜지색이 길하다.



▶**유정** 의욕과 자신감은 넘치지만, 도가 지나쳐 방심을 초래해 손해를 볼 수 있겠다. 2, 8, 12월생 각별히 신중할 태도가 요구될 때다. 마무리 짓지 못 하고 또 다른 일을 벌인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겠으니 확보다 내실을 기하라.



▶**진미** 4, 8, 10월생 뜻한 것을 소신했 밀어붙이면 성공한다. 사업, 직장 관계는 성실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 2, 7, 12월생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나오니 더 많은 수양이 필요하다. 의욕만 중사자는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켜 내실을 기하라.



▶**정미**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머구름처럼 겹치니 먹을 것을 찾아내야 할 때다. 1, 5, 6월생 아침내 좋아하지만, 지출 또한 많아지니 성급하게 판단하고 일을 추진하지 말라. 4, 5, 10월생 서쪽에서 새로운 희망이 온다.



▶**진미**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라. 환락에 빠져들기 쉬우니 주의해야 파멸을 막는다. 7, 9, 12월생 모든 것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본연의 자질을 잃지 말라. 같이 일하는 자 실망으로 떠나려는 마음을 알아야 한다.



▶**정미**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주위 협조가 절실하다. 작은 실수로 남에게 점수를 잃는 일이 없도록 매사 차분한 언행이 필요하다. 3, 4, 9월생 2, 7, 12월생 동로 협조로 새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된다. 4, 5, 6월생 검은색은 삼가라.



▶**정미**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승산 있는 계획도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성공은 내가 만든다. 고여 썩어가는 물이 되지 말고 자기개발에 힘쓰라. 7, 8, 12월생 집안간 사람에게 내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유정** 지나친 욕심은 삼가고 지혜롭게 화합할 때 주위의 찬사를 듣겠다. 7, 8, 12월생 모든 일을 겸손하게 처신한다면 바라던 대로 성취할 수 있다. 4, 5, 8월생 인생에서 도움 주는 자 조연을 되며 더 많은 꿈을 펼치도록 삼고라.



▶**정미** 6, 9, 11월생 사업은 당장 작은 이익보다 긴 안목으로 생각하며 실행하라. 그러나 무슨 일이든 신중히 생각한 뒤에 처신해야 한다. 7, 8, 12월생 대인관계로 신경 쓸 일 발생 할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라. 무리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정미**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현재 위치를 그곳이 지켜 나갈 때 아름다운 푸르름을 맛볼 수 있다. 기분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하라. 7, 8, 12월생 휴식 뒤에 상쾌한 마음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접근하라. 좋은 소식을 준다.



▶**정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힘드나 7, 8, 12월생 성공하려면 안 될 것도 없다. 그러나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면 복이 화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8, 12월생 마음의 병을 방지해두면 길이 뿌리내리니 조심하라.